

“즐기는 수행...해운대로 오세요”

반나라마 씨피스쿨 20일 개원



“수행을 즐기자”는 반나라마 씨피스쿨이 부산 해운대에 생겼다. 사진은 김해 다보선원에서 수행모습.

안개 속을 지나면 웃은 안개에 젖듯 이 수행을 가지고 놀면 몸과 마음은 수행의 향기로 물든다. 반나라마 씨피스쿨(이하 반나라마)은 엔조이 씨피(Enjoy Sati), ‘수행을 즐기자’란 본칙(本則)으로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즐기도록 돕고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반나라마는 김해 다보선원을 본부로 국내에서는 서울, 성남, 대구, 울산에서 선방을 운영 중이며 인도, 뉴질랜드에서도 국제선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남방근본불교도량이다. 이번 3월 20일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에 새로운 지점을 개원한다. 해운대 반나라마 지점은 반나라마 본부의 교육방침과 수행방법을 그대로 전수한다. 또한 수행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편하게 방문하여 수행할 수 있는 도량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몸이 지치고 더러워 목욕탕을 찾듯 사람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심을 얻고자 할 때 불교를 찾습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문제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합니다. 불교에서 심을 원하는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선방을 개원한다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하겠지요. 이것이 해운대에 선원을 개원한 계기입니다.”

반나라마 선원장 반아디빠 스님은 선원의 역할과 개원 의미를 이와 같이 밝혔다.

“목욕탕 수만큼이나 선원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신도시이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부처님 법으로 행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 지점은 부처님의 수행법을 배우는 교육기관과 마음의 심을 얻는 선방 역할, 두 가지 모두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65일 모두에게 열려 있는 선원이 되도록 지향할 것입니다.”

해운대 반나라마는 수행교실 및 수행모임으로 운영된다. 수행교실은 수행의

기본을 익히고 배우는 과정으로 5회 출석 수업과 24시간 사이버수업(www.sat.ischool.net)으로 진행된다. 출석 수업은 1회 수행기술(좌선, 행선, 생활선, 지비수행), 2회는 마음과학을 가르친다. 3~5회는 몸과 마음으로 수행을 익히는 시간이다. 사이버 강의는 출석수업의 복습과 함께 수행이론과 인도불교사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수행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배우는 수행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 불다빠라 스님을 지도법사로 열린다. 불다빠라 스님은 서울 약사에서 출가해 양산 통도사 사서 청하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대 선학과 학부와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강의를 맡아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통도사 포교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근본불교 상가(Sangha) 최고지도법사로 있으며 부산 김해 반나라마와 인도 불다가야선원, 근본불교학교에서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051)702-2841

하성미 기자 hsbp@hanmail.net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심학섭 법사

포교를 위한 최고의 장소

젊은 인재들 키우기 위한 최고의 장소가 있다. 바로 군포교 현장이다. 군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들을 향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바라보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힘겨운 한발 한발을 옮기고 있는 곳이 있다. 부산 용호

불교청년회와 연계하여 장병들을 위한 여러 방편들을 마련할 것이다.”

젊은이의 시기와 시대적 차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은 21년 동안 군법사로 활동하며 깨달은 일각 법사의 노후다.



“인재가 곧 재산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뛰며 활동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인재 100명이 10명 아니 100명을 키워내는 것이지요. 젊은 인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군포교 현장은 인재를 키우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동 해군작전사령부 부는 지난 2007년 12월 진해에서 부산 용호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군작전사령부는 해상주권을 수호하는 해군들의 작전 사령탑으로 수많은 장병들이 생활하고 있다. 아직 갈바람이 부는 바다의 중심에서 한반도의 해상주권을 수호하고 있는 부산 용호 동 해군작전사령부 3월 5일 종교활동 시간에 맞추어 찾았다.

장병 위한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마련 “외부 봉사단체 방문이 큰 힘 되죠”

매주 수요일 7시 장병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곳은 200여 명의 젊은 장병들로 법당이 가득 차 있었다. 이날 법당에서는 동아대 박규보 교수를 초청하여 ‘다종교 사회에서 불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특별 강의를 진행되고 있었다.

진지한 눈빛과 바른 자세로 흐트러짐 없는 장병들의 모습은 불교를 향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군작전사령부가 이전하면서 새로 부임한 일각 심학섭 법사는 해군 장병 포교의 지휘 역할을 맡고 있다. “젊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흥미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불교도사 부산과 함께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포교사단과 외부

새로 부임한 후 일각 법사는 2월 24일 부산 차 문화 진흥연구회와 정다문화회 회원들을 초청하여 ‘장병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차자리’를 개최했다. 장병들을 위해 차 문화를 소개하고 불교문화를 편하게 만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앞으로 일각 법사는 “장병들에게 불교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차 행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작전사령부의 또 다른 포교사들은 바로 각 사찰에서 찾아온 어머니 봉사자들이다. 매주 수요일 종교교류 활동시간에 외부 사찰에서 오는 봉사자들은 장병들을 위한 간식을 손수 만들어 제공한다. 일각 법사는 “홍백산, 공덕원, 포교사단, 대한적십자사 불교봉사회 참사랑단 등 다양한 곳을 통해 찾아온 봉사자들의 간식은 정성으로 가득 차 있어 장병들이 무척 좋아해 포교에 도움이 많이 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고딩불자’ 다 모여라~”

부산 파라미타, 고등부 모임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 이하 부산파라미타)는 3월 15일 오후 3시 부산불교신도회관 법계정사에서 ‘고등부를 위한 첫 법회’를 개최한다.

파라미타 고등부 법회는 파라미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으나 진학한 고등학교에 파라미타가 없어 활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법회이다. 즉 고등학교에 파라미타가 없어도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산파라미타에서 자리를 마련한다.

부산파라미타 유진상 사무차장은 “학생들의 지속적인 신행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리였다”며 “중등부를 이어 고등부 대학생까지 부처님의 법 아래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산파라미타 고등부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정기 법회를 개최하고 불교를 통한 마음공부 뿐 아니라 특별활동을 개최해 아이들의 정정 정기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대각 30년, 그 열정을 위한 비상”

부산 대각사 대각불교청년회 창립 29주년 기념법회

부산 대각사(조실 경우) 전국불교청년회(회장 신수홍)가 창립 29주년 기념법회를 3월 16일 대각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봉행한다. 기념법회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일반재가불자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문화체험행사로 한지체험공예 및 네일아트를 진행한다. 본 행사는 오후 6시 시작되며 법요식 및 축하공연을 마련했다. (051)245-8781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장 연임



영광동서 대표이사 김윤환 회장(사진)이 제10대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장을 연임하고 상임회장은 (주)동해통신 대표이사 이달숙 회장이 선출됐다. 부산불교실업인회는 2월 27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하성미 기자

사천 극락사 전시회

사천 극락사(주지 동진)는 3월 8일부터 12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장학기금마련 및 불사건립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 수안 스님의 육바라밀 병풍 등이 전시됐다.

동진 스님은 “이번 전시회는 극락사 건립 및 어려운 환경에서 한학열을 불태우는 학생들의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삼천 부처님 부르며 삼천매 참회

감로사, 17일부터 21일까지

부산 감로사(주지 혜홍)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제57회 삼천불 삼천매 참회기도회’를 봉행한다. 기도 중에는 삼천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매일 600배씩을 진행하고 오

후불식을 실천한다. 이와 함께 영산 율원장 철우 스님을 유나로 모시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인환 스님,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 등 17명의 법사 스님을 초청, 법문도 마련한다. 하성미 기자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넘어공용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 국가기념

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대단히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앞터치 신발끈으로 되어있다.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고, 스님께서는 승복색상에 맞게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백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창하고 있다. 또한 카필라를 신고 만행할 때 악귀와 잡귀를 미라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 것이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백 사용

독특하다. 성불화 카필라”는 넘어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사이즈 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관절과 연골이 불편하십니까? 관절과 연골 건강을 위하여

글루코사민 ‘파격할인’

“선착순 300분께” 총18개월분을 69,800원...

창사 30주년

한일그린팜(한일그린제약) 30년만에 특별세일!!

창사 30주년을 맞은 한일그린팜(주.한일그린제약)이 하루 129원으로 관절과 연골의 건강을 대박세일을 선언했다. 한일그린팜(주.한일그린제약)은 올해부터 동남아를 시작으로 세계무대 진출을 선언, 앞으로 전 세계인들이 한일그린팜(주.한일그린제약)의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수 있는 시대를 연 것이다.

◇하루 129원으로 효도실천

한일그린팜(주.한일그린제약)의 창사 30주년 기념과 글루코사민 선언으로 인해 발표된 대박세일은 다음 아인 ‘효도세일’.

어르신들의 관절과 연골의 건강을 지키시라는 의미에서 글루코사민 6개월분, 해조칼슘 6개월분, 비타민 6개월분, 총18개월분을 선착순 300개 한정 69,800원에 판매하는데, 이는 하루 129원인셈, 제품 구입을 서둘러라 말한다. 한일글루코사민은 ▲관



글루코사민 6개월 + 해조칼슘 6개월 + 비타민 6개월 = 총18개월

구입문의 080-223-7000
*택배비 고객부담 2,200원
농협 1285-02-011378 이현실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삼옷! ‘천하무적’ 옷가네 토종삼옷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옷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옷은 한뼘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옷이 좋은 줄은 알지만 옷값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삼옷제품이 출시되면서 숨을 자주 쉴 수 있는 날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인)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내용량 : 1박스(80cm x 60cm) 2개월분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민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희은 지공 - 옷 만드는 천하무적 개발
- KBS 고희은 아침 - 천하무적 옷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옷 잘 갖춰야 하는 천하무적
- 2003.11 한국경제 - 천하무적 옷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옷 만드는 천하무적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천하무적 옷을 따뜻하게 한다, 날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활을 얻는 옷,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천하무적 옷이 되는 옷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상심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옷 협찬
- ▶2006.10.31 KBS 무한재미극 - 협찬

구입편 꼭 확인을...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축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옷가네 참옷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